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울 뿐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㊱ 유심경계

누가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그대가 물으려 하면 벌써 달라져 마음의 성품과 모양이 나누어져 버렸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 모두 자성(自性) 없고 또한 생겨나는 성품도 없느니라. 다만 헛된 이름만 있을 뿐 그 이름도 헛된 것이니라. 그대들이 저 부질없는 이름을 오인하여 진실이라 여기고 있으니 크게 잘못된 것이니라. 설사 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변화를 의지하는 경계일 뿐이다. 깨달음을 의지하고 열반, 해탈을 의지하고 삼신(三身)을 의지하고 경계와 지혜를 의지하고, 보살이나 부처를 의지한다 하는데 그대들이 변화하는 국토 속에서 무엇을 찾겠단 말인가?

더 말하자면 삼승십이분교(三乘十二分敎)의 경전도 모두 더러운 똥을 닦는 휴지이며, 부처도 허깨비 같은 몸이며, 조사도 늙은 비구일 뿐이니라.

그렇지만 그대들 자신은 어머니가 낳아준 몸을 가진 사람 아닌가?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곧 부처라는 마군에 걸려들고 만약 조사를 구한다면 곧 조사라는 마군에 걸려들어 버리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무엇을 찾아 구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괴로울 뿐이니라. 아무 일 없느니만 못하느니라."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난다(因地而倒者 因地而起)' 는 말처럼 깨닫지 못한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니다. 마음이 미혹한 상태로 있는 것은 넘어진 것이요, 깨달은 상태로 있는 것은 일어선 것이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몸과 일어난 몸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잠자는 눈이나 깨어 있는 눈이 매한가지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 중생 셋이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하였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임제는 묻는 그때 마음은 이미 달라져 버린다고 대답한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경지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경지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면 마음도 없다. 그런데 마음과 마음을 물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묻는 것이다. 한 생각 일어나 유심경계에 떨어져 버린 것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유심경계 즉 분별의식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선(禪)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화두를 제시하고 실참(實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사바세계가 음성교체(音聲敎體)라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을 필요로 할 때는 깊은 사유의 세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허상만 좇아다니는 것이다. 말 없는 이언(離言)의 세계가 실상인 진여(眞如)이므로 말을 의지하는 의언진여(依言眞如)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임제는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헛된 이름뿐이라고 말한다.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는 이름에 속아 끝없는 분별을 내고 있는 것이 모두 중생의 망업(妄業)일 뿐이라는 것이다.

달마의 〈사행론(四行論)〉에 무소구행(無所求行)이 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는 뜻을 가진 매우 역설적인 말이다. 미혹한 사람은 구하는 것이 있고 깨달은 사람은 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욕구가 일어나 어떤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울 뿐이다(有求皆苦)"고 하였다.

부처의 몸을 허깨비 같은 것이라 하면서 어머니가 낳아준 몸(娘生己=娘生身) 밖에 찾을 몸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심탈락(身心脫落)' 이라는 말이 있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인데 모든 번뇌와 집착이 떨어져 나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다. 송나라 때 천동 여정(天童 如淨)이 납자들이 좌선 중에 조는 것을 보고 "참선은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無明의 실다운 성품이 곧 佛性



세상 속 경전읽기

㊱ 제법공상(諸法空相)

〈반야심경〉의 '제법공상(諸法空相)' 이란 '우주만물[諸法]의 참모습[實相]이 공한 모습[空相]' 이라는 것으로 색즉시공[色卽是空, 나아가 오온개공(五蘊皆空)]과 같은 말이다. 이 공상(空相)은 생멸(生滅) 및 더러움과 깨끗함[垢淨]도 없고, 흠축(欠縮) 없이 원만해 늘고 줌[增減]도 없다. 이 공상은 다만 비어있는 것[但空]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묘하게 있음[妙有]' 이기도 한 '참공[眞空]' 이니, 곧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색즉시공' 과 '공즉시색' 을 수학(數學)의 입장에서 보면, '색=공' 과 '공=색' 의 수식으로 치환되니 같은 수식이 되지만, 불교에서 이는 참이 아니다. '색즉시공' 의 '색' 은 '가상가명(假相假名)의 색' 이고, '공즉시색' 의 '색' 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인 '묘유(妙有)의 색' 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은 산, 산은 산이 아님, 산은 다시 산' 에서 '산은 산' 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연기로 본 실상)을 모르는 범부가 철석같이 믿은 산으로 가상가명일 뿐이고, '산은 다시 산' 의 산은 묘유(妙有)인 것이다.

이 '묘유의 공상' 인 제법실상[諸法實相; 우주만물의 참모습]에 대해, 〈묘법연화경〉 제2 방편품(方便品)에서는 '열 가지 특징[十如是]' 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이 성취한 바는 제일로 희유하고 난해한 법이어서, 오직 부처님들만이 제법실상(諸法實相: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전부 다 알 수 있느니라. 이른 바 우주만물[諸法]은 (열 가지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지니고 있으니) 있는 그대로[如是]의, 외적 형상[相], 내면의 본성[性], 사물의 본체[體], 힘[力], 작용[作], 직접원인[因], 간접원인[緣], 직접결과[果], 간접결과[報], 처음과 끝이 끝내 평등함[本末究竟等]의 열 가지 범주가 그것이니라." 〈妙法蓮華經 T0262_.09.0005c10-c13〉

이 '십여시(十如是)' 는 천태종의 모든 가르침의 바탕으로, 천태종의 중요한 세계관이기도 하다. 천태 지의 선사는 세계를 범부의 6계(界)와 성인의 4계[四聖六凡] 도합 십계(十界)로 나누었다. 곧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하늘의 육도(六途)인 6범(六凡)에, 성문·연각·보살의 삼승(三乘)과 부처의 사성(四聖)을 더한 십계이다.

금타 대화상께서는 '색즉시공' 곧 '제법공상' 에서, '색[제법]' 을 '쇠에 슬은 녹' 에 비유하고, '공[공상]' 을 '쇠' 에 비유하여 견성(見性)을 위한 수행방편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 '공즉시색' 은 곧 '무애심(無碍心)의 무상행(無常行)' 이라 하고, 공[무애심]을 마니보주(摩尼寶珠)에 비유하고, 색[무상행]을 마니보주에서 발하는 무량보광(無量寶光)에 비유하여 (견성 후) 증도(證道)의 수도방편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견성의 과위(果位)를 실상삼매(實相三昧)라 하고, 증도의 과위를 보현삼매(普賢三昧)라 하였다.

"어리석음[無明]의 실다운 성품[實性]이 곧 불성(佛性)이요, 허깨비 같은[幻化] 빈 몸[空身]이 곧 법신(法身)이로다." 〈永嘉證道歌 T2014_.48.0395c10〉

위 구절은 〈증도가(證道歌)〉의 일부로, 금타 대화상께서 '무명' 은 녹. '실성' 은 쇠와 같다 하였고, '환화' 는 보광(寶光), '공신' 은 보주(寶珠)와 같다 하였다. 따라서 '무명실성즉불성' 은 '색즉시공' 의 다른 표현이고, '환화공신즉법신' 은 '공즉시색' 의 다른 표현이다.

〈증도가〉를 지은 영가 현각(永嘉 玄覺: 665년~713년) 대사는 당(唐)의 승려로, 호는 일숙각(一宿覺)이고 8세에 출가하여 천태의 지관(止觀)에 정통하고, 〈유마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도반 현책(玄策) 선사의 안내로 혜능(慧能)을 찾아가 문답하여 인가를 받고 하룻밤을 묵은 후 용흥사(龍興寺)로 돌아와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22

주력, 중요한 수행체계

불교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책도 보지 않은 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송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千手經)〉이었다. 그렇게 긴 글을 어떻게 암송하는지 궁금해서 한 분에게 물어보니 2, 3년 정도 매일같이 독송하면 저절로 외워진다는 것이었다. 특히 천수다라니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돌아온 답은 뜻밖에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문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외워야 효험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떤 음절이나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주력(呪力) 수행이라 한다. 주력은 글자 그대로 주문(呪)에 초월적이고 신비한 힘(力)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게 되면 자신이 지은 모든 업장을 털어내고 깨달음을 얻거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력은 진각종(眞覺宗)이나 진언종(眞言宗), 총지종(摠持宗) 등의 밀교 종단에서 중시하는 수행법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한 주문으로 '옴 마니 반메 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등이 있다. 주문은 진언(眞言, mantra)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아주 긴 주문은 다라니(陀羅尼)라고 한다. 다라니는 붓다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해서 총지(總持)라 부르기도 한다.

주문에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고대 인도인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활용하였다. 또한 병을 치료하거나 재난을 물리치기 위한 의식으로도 사용하였다. 바라문교의 성전인 〈베다(veda)〉에는 각종 신들을 찬양하는 수많은 주문들이 실려 있는데, 특히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는 주문만을 별도로 모아놓은 책이다. 사람들은 신을 향해 외치는 주문 안에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주문을 곧 신의 음성이자 우주의 에너지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문에 초월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믿게 되자 그들은 신 보다 오히려 주문 자체를 신성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옴(aum)' 과 같은 주문은 그 자체로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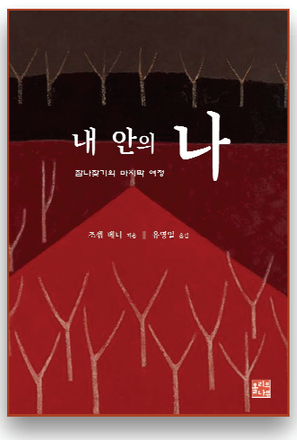
이러한 주력 수행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대중들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수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의상대사의 〈백화도량발원문〉에는 "일체중생이 대비주(大悲呪)를 외우고 보살의 이름을 불러서 다 같이 원통삼매(圓通三昧)의 바다에 들기를 발원합니다." 라는 구절이 보인다. 여기에서 대비주란 바로 '나모 라다나 다라야 야' 로 시작되는 천수다라니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신라 당시에도 주력 수행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력 수행은 종파와 관계없이 중요한 수행법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력을 통해 불교의 본질인 깨침에 이를 수 있을까?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꺼져가는 선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허(鏡虛, 1849~1912) 선사는 제자인 수월(水月, 1855~1928) 선사에게 천수다라니를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일자무식이었던 수월 선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력 수행에 정진한 결과 마침내 깨침에 이르고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선지식으로 우뚝 세게 된다. 선사들이 주력을 중시한 이유가 다 있었던 셈이다. 주력은 그 자체로 깨침에 이르는 중요한 수행체계였던 것이다.

주문은 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실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 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라고 말한다. 그런데 기독교의 주문에 해당되는 주기도문은 한글이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만약 불교의 진언이 우리말이라면 그 뜻을 모를 수 있겠는가. 인도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요즘은 주문이 거의 우리말로 번역되어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새기면서 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가 왜 주문을 외우는지, 그것이 나의 실존에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고 주력 수행을 하자는 것이다. 문제의식과 간절함, 이는 주력을 포함한 모든 수행의 기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